

불황에 김장하는 주부 늘어 주방용품업체 '김장 대전'

뉴스카페

김장철을 앞두고 주방용품 업체들이 '김장 대전'에 뛰어들었다. 오랜 경기 불황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김치를 담가 먹는 가정이 늘고 친정이나 시댁 등과 함께 김장하는 젊은 주부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용품업체 락앤락이 최근 주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비율이 74%로 지난해(65%)와 2012년(61%)에 비해 크게 늘었다. 김장 재료를 구매할 때 가격이 저렴한 전통시장을 찾겠다는 대답도 40%로 지난해(31%)보다 높았다. 김치를 사다 먹는 데 들어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다.

친정 또는 시댁과 김치를 담그겠다는 주부는 지난해 59%에서 올해 61%로, 이웃과 담근 뒤 나눠 먹겠다는 주부는 지난해 1.9%에서 올해 6%로 증가했다.

가장 잘 빠르게 나신 곳은 락앤락이다. 이 회사는 국자로 뜨기에 적합한 동치미용 김치통(사진), 저열 김치에 맞도록 누름판을 추가한 프레스트, 부모로부터 김치를



조금씩 받아먹는 싱글족을 위한 소용량 김치통 등 제품을 세분화해 내놓았다. 락앤락 관계자는 "김치 관련 용품 매출이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자기업체인 젠은 도자기로 만든 '생생용기 김치통'을 내놓았다. 도자가 김치 맛을 오래 살려 준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월드킴친은 크기가 200mL부터 1850mL까지 다양한 '코렐스 밥웨어'에 예쁜 패턴을 그려 넣어 용기 그대로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타파웨어에서 선보인 퓨어 김치키퍼 뚜껑엔 실리콘 패킹이 없다. 뚜껑 가장자리에 고춧가루 김치국물 등 이물질이 끼서 불편하다는 주부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관리하기 편하도록 뚜껑의 실리콘 패킹을 없앴다.

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두손 친환경 세탁세제 '크린씰'

친환경 세제에 '특허 신물질' 넣어 세탁력 개선

(폴리실리케이트)

포기한 사업 '액체'로 되살려
계면활성제 사용 3분의1로
아기용·아웃도어용 세분화

친환경 세제를 넣으면 세제 분해가 잘 안 되고, 세탁력이 높이기 위해 성능이 좋은 세제를 쓰면 옷에 남는 세제 찌꺼기가 적정되고..

이성훈 두손 대표가 내놓은 '크린씰'은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 대표는 세제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를 3분의 1로 줄였다. 기존 친환경 세제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폴리실리케이트'라는 새로운 특허 물질을 넣었다. 개발에만 10여년이 걸렸고 4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사장됐던 세제를 살려놓다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상'을 받은 크린씰은 적은 양만 넣어도 빨래가 깨끗하게 잘 되면서도 피부에 순한 친환경 세탁용 액체세제다. 크린씰의 핵심 성분인 신물질 폴리실리케이트를 발견한 사람은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한 교수다. 약

70nm 구조의 입자들로 구성된 폴리실리케이트를 개발한 신세희 중앙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이를 활용한 세제를 만들고 싶어 했다. 2005년 주광산업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루 형태의 크린씰을 처음 내놓았다.

자동차용 와이어 생산업체에 다녔던 이 대표는 신 교수 회사에 합류했다. 그러나 제조 단가가 높고 제품의 미비점이 발견돼 이렇다 할 이익을 내지 못한 채 사업은 흐지부지됐다.

크린씰에 애착을 갖고 있던 이 대표는 2012년 '두손'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이 사업을 이어받았다. 그는 크린씰을 제대로 살려 세상에 내놓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 작업엔 이 대표의 부인도 함께 매달렸다. '내 딸들에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세제를 물려주자'는 게 부부의 목표였다. 가루 세제를 액체로 업그레이드했고, 부인은 용기와 라벨 디자인을 했다.

◆아기용·아웃도어용 등 세분화
크린씰은 무공해 성질을 유지하면서도 세탁력과 표백력을 높였다.



이성훈 두손 대표가 인천 가좌동 사무실에서 친환경 세탁세제 '크린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잘 빨리기 때문에 일반 세제의 절반만 넣으면 되고, 섬유유연제를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대표는 "검증 전문업체 SGS에 실험을 의뢰하니 기존 친환경 세제보다 세척력이 3배가량 강했다"며 "냉수와 센물, 수질이 안 좋은 중국과 유럽 등에서도 세정력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부인은 "어느 날 깜박하고 제품의 뚜껑을 열어봤는데 벌레가 모여들었을 정도로 성분이 순하다"며 "색소와 방부제, 인산염 등을 빼서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을 겪는 아이들 빨래도 안심하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손은 최근 1회용, 아기용, 아웃도어용 등 크린씰 제품군을 늘렸다. 이 대표는 "아웃도어 의류를

세탁소에 맡기면 솔벤트(드라이클리닝용 유기용제)가 옷에 코팅된 막을 손상시켜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해외 수출·제품 다양화 추진
크린씰은 온라인몰과 마트 등에서도 중국과 유럽 등에서 세정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이 대표는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 재구매율이 80%까지 올라가는 등 젊은 주부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근 중국 섬유제조업체와 계약을 맺고 '블루돌핀'이란 이름으로 수출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주방세제와 섬유유연제 탈취제 화장품 등으로 제품군을 넓힐 계획이다. 그는 "회사명 두손은 '우리의 두 손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든다'는 각오를 담은 것"이라며 "세계적인 생활용품업체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두손의 크린씰 세탁세제 (032)577-3760 △루바니의 유니폼보존보관가방 (02)1588-0647 △아이덴텍스의 원바디행거 스탠드형 스타다리미 (055)312-7610 △뉴젯사우나의 원적외선 사우나기 (031)311-3640

www.safekorea.com

함께 만들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2014 대한민국 사회안전 박람회

Korea Social Safety Expo 2014

2014.11.12(수) ~ 11.15(토)
| 일산 킨텍스 Hall 4

◆"대한민국사회안전박람회"는 우리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재난안전, 해양안전, 범죄예방(정보기반보호, 여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교통안전(자동차·항공·철도), 산업안전, 식품안전 등 안전에 대한 분야를 총 망라한 안전산업의 종합전시회입니다.

2014.11.12(수) ~ 11.15(토)
| 일산 킨텍스 Hall 4

전시분야

- 범죄예방
- 재난안전
- 교통안전
- 산업안전
- 식품안전

부대행사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공동세미나
- 재난정보 한·중·일 세미나
- 국제안전도시 세미나
- 안전디자인 사진전

체험 프로그램

- 소방안전체험
- 안전체험관
- 안전퀴즈 골든벨

관람안내(일반 및 초·중·고 단체)

일시 : 11.12(수) ~ 15(토),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매 1시간 15분마다 10분 휴식)

입장료 : 무료

*관람객생동예거는 경기도지사 명의예정의 안전예행과 이수증을 신청서 발급

문의 :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 Tel. 02(360-4507/4517 Fax. 02(360-4503 E-mail. safekorea@naver.com

주최 : 한국경제신문, 경기도, 한국경제신문

후원 : 교육부, 문화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량안전관리, 경찰청, 서울특별시

주관 : KINTEX

주최 : 한국경제신문

3년새 가동률 절반... 얼어붙은 반월염색단지

현장리포트

의류공장 해외이전 여파
단지 내 직원 2000명 줄어

반월염색단지 개요	
조성	1983년(물재생센터 준공)
입주기업	75개
근로자	6000여명
면적	약 60만㎡
염색종류	화섬직물 사업 니트 견직물 면직물 날염 등

차이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업종을 약간 변경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점도 부담이다. 강 전무는 "일반 염색 수요는 줄어도 날염 오퍼는 늘어난 업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 기업은 일반 염색 시설을 날염으로 바꿀 수 없을 만큼 규제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며 "이런 규제를 풀어야만 정부에 수없이 건의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염색산업 규제를 풀이 고 뿌리산업으로 지정해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섬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뿌리산업진흥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요 금융 등 6개 분야 뿌리산업에 염색도 넣어 첨단염색기업 개발 등 한국의 특화된 염색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탈리아 같은 염색 선진국이 자기만의 영역을 확고히 굳히고 있는 것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경찬 벤틱스 사장은 "염색 업체들이 의류업체와 함께 개선 공단에서 수직계열화할 수 있다면 제2의 르네상스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산=김낙훈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질은 구름이 내려앉은 지난 6일, 경기 안전 반월염색단지는 날씨만큼이나 가라앉아 있었다. 불황이 이곳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강선규 반월염색사업조합 전무는 "3년 전만 해도 인력 경쟁전을 벌일 정도로 경기가 좋았던 이곳의 공장가동률은 현재 겨우 5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 야근과 휴일 근무를 자주 하고 경쟁사 직원 빼오기 경쟁마저 심했던 때가 언제였나 싶을 정도다. 200여명의 직원을 둔 중견 염색업체 한곳이 최근 부도를 내면서 이곳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다.

반월염색단지는 서울 영등포와 목동 등에 흩어져 있던 염색업체들이 1983년 이곳으로 옮겨오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 사업을 통해 '물 재생 센터'가 들어서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60만㎡ 부지에 들어선 염색단지 입주기업은 염색업체 66개, 관련 기자재업체 9개 등 모두 75개다. 염색 종류별로는 화섬직물이 17곳, 니트 12곳, 날염 11곳, 면직물 6

스마트폰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내세요

하이플러스카드

선불 하이플러스카드 운영업체인 하이플러스카드(대표 박기재)가 스마트폰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는 '고속도로 모바일카드 Pay-G'를 내놨다. 'Pay-G'는 스마트폰 앱으로 구글 플레이, T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나 로그인이 없이 간단한 정보 동의만으로 바로 쓸 수 있다. 인천공항 주차장